

성명서(초안)

대학은 진리와 진보의 공간이며 지식의 상아탑으로 이 속에서는 그 어떠한 폭력과 불평등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간주된다. 특히, 성폭력/성희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대학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순수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93년 신교수-우조교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결과,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었다. 이후에도 대학내 성폭력/성희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생, 단체들이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대학의 명예를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인해버리는 태도를 취했었다. 학내 성폭력/성희롱의 문제를 묵인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정당한 구성원인 여성들의 고통을 묵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침묵은 유지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이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희롱은 교육상, 또는 고용상 남녀평등권에 위배되는, 그리고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발언, 행동과 환경조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폭력/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남성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성적 위계 질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학점과 지식이라는 권위를 쥐고 있는 교육자와 이에 따라야 하는 피교육자라는 위계 질서와 맞물려 여학생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김균진 교수님의 수업 시간 중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발언들은 여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심지어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할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김교수님의 발언들을 성희롱임과 동시에 여성의 교육권 침해 행위라 규정한다.

우리는 이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한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연세대 내에서 이미 많이 일어난 일이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며 더 이상 여학생들이 불쾌감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학생과 남학생이 진정한 공존을 이루는 남녀 공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김균진 교수님과 학교 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강의 중의 성적 발언들이 성희롱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 사과를 할 것

: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사과를 하셨다고 하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 한 수업 시간에 국한된, 또는 단순한 '말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 엄연한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 학교 당국은 교수-학생 사이의 성폭력/성희롱의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연세대에서 이전에도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학생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침묵 속에서 이를 해결해나가려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피해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한다.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